

한국축구 시스템이 놓고 있다 KFA는 정책 이행 의지 있나?

2019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축구협회(KFA)가 마련한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축구 정책 보고회’였다.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팬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가대표팀 감독 권한 강화 및 선수 선발 권한 ▲대표팀 축구철학과 장기 계획 ▲여자대표팀 A매치 및 WK리그 활성화 ▲유망주 선발 및 육성 효율화 등이 발표된 자리에서 KFA는 “대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향도 분명했다.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유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어린 선수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 연령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세 이하(U-15)부터 23세 이하(U-23)까지 쪼개서 관리하는 동시에 퓨처팀을 운영해 재능에 비해 성장이 더딘 선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년여가 흐른 현재의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멀쩡했고, 축구계 안팎에서 많은 신뢰를 얻었던 다양한 시스템이 멈춰버렸다. KFA가 정몽구 회장의 3선 임기가 시작된 올해 초 박경훈 전무를 비롯한 수뇌부를 재구성하고 조직을 개편한 시점과 맞물린다.

대표팀 운영의 핵심인 기술 파트가 이용수 부회장과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 체제로 넘어간 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장기적 기술 발전의 토대를 쌓는 기술발전위원회와 각급 대표팀 전력 강화 및 국가대표선수 성장의 구조를 담당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KFA가 최근 조용히 바꾼 정관에 따르면 기술발전위는 ‘기술발전과 교육을 목적으로 선수 및 지도자 양성, U-17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역할을, 전력강화위는 ‘남녀국가대표와 U-18 이상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역할을 각각 맡는다. U-15부터 A대표팀까지 통합해 관리해온 전력강화위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기술발전위의 경우 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존의 미하엘 뮐러 전 위원장(독일)은 위원(부위원장)으로 내려간 상태다.

축구인들은 “전 연령대가 세계대회(U-17·U-20 월드컵)에 출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는데 갑자기 틀을 바꾸느냐”며 고개를 찡그린다. 더욱이 KFA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KFA는 무슨 영문에서인지 연령별 대표팀 코칭스태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거듭된 국제대회 취소를 이유로 대지만, 감독 공백을 우리처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레놓고 ‘선진축구’를 지향한다고 거창하게 포장한다. KFA는 “(어린 선수들은) 전임지도자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이해할 수 없는 KFA의 2021년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카타르월드컵 포최종에선 돌입…파주에 다시 모인 태극전사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 1·2차전을 앞둔 축구국가대표팀이 30일 파주 NFC에서 소집돼 강화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9월 2일 이라크, 7일 레바논과 잇달아 대결한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이 악문 송민규·이동경 “무조건 팀에 헌신”

전북 송민규 최근 6G연속 선발
“많이 부족…좋은 모습 보여줄 것”
울산 이동경, 멀티골 등 맹활약
“컨디션 좋아 최대한 드러내겠다”



FIFA WORLD CUP Qatar 2022

송민규(22·전북 현대)와 이동경(24·울산 현대)이 2020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국 축구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탠다.

이라크(9월2일·서울월드컵경기장), 레바논(9월7일·수원월드컵경기장)과 홈 2연전을 시작으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돌입하는 축구국가대표팀은 3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됐다. 핵심 공격수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송



송민규

이동경

민규와 이동경은 A대표팀에선 헌신적 자세를 강조했다. 둘은 입을 모아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도쿄올림픽은 둘에게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

송민규는 지난해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올림픽대표팀 공격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올 시즌에도 포항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올림픽이

개막하는 시점에 전북으로 이적했다.

신상의 변화로 온전히 대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황의조(보르도)와 함께 올림픽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

이동경은 빠른 활약을 보였기에 더욱 아쉬운 올림픽이었다. 그는 본선으로 향하는 예선 과정부터 올림픽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림픽 개막 직전인 6월에는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의 부름을 받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참가했고, A매치 일정을 마치자마자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 제 몫을 다했다. 뉴질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상대 선수의 악수 요청을 거부해 발생한 논란조차 멕시코와 8강전 멀티골 활약 등으로 잠재웠다.

올림픽이 끝나자 둘은 소속팀의 리그 선두경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에 합류한 송민규는 최근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이적 후 첫 공격 포인트는 아직 신고하지 못했지만, 전북의 무패(4승 2무)에 기여했다.

이동경도 눈부시다. 팀에 복귀한 직후인 4일 대구FC전부터 선발 출전했다. 강원FC전에선 선제골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했고, 2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선 멀티골로 3-2 승리에 앞장섰다. 살게04(독일 분데스리가2)의 이적 제안까지 거절한 채 팀에 헌신하고 있다.

둘은 이제 월드컵을 향한 한국축구의 여정에 함께한다. 6월에 이어 2번째로 A대표팀에 소집된 송민규는 “많이 부족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팀 목표에 맞게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이동경 역시 “(소속팀에서) 컨디션이 좋아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잘 드러내고 싶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맹활약을 약속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손흥민·황의조·황희찬·김민재〉

딱 하루 손발 맞추고 투입…‘해외파 4인’ 컨디션 관리 과제

오늘 귀국…9월 2일 이라크전
팀 조직력 점검엔 아쉬운 상황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30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이라크(9월 2일·서울월드컵경기장)~레바논(9월 7일·수원월드컵경기장)과 홈 2연전을 시작으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돌입한다.

초반 흐름이 전체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홈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벤투 감독도 “힘든 과정이고,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의 프로세스와 준비를 믿고 좋은 경기를 하겠다. 9월 홈 2연전을 최고의 경기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있다. 태극전사들의 합류 시기다. 벤투 감독은 9월 일정을 위해 선수 26명을 소집했는데, 4명이 다른 동료들보다 하루 늦은 31일 합류한다. 늦은 주말까지 소속 팀 일정이 잡혔고,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운항도 줄어든 여파다.

공교롭게도 4명 모두 핵심 자원들이다. 주장 손흥민(29·토트넘)은 말할 것도 없고, 라이프치히(독일)를 떠나 올버햄턴(잉글랜드)으로 이적한 ‘다용도 공격수’ 황희찬(25), 스트라이커 황의조(29·보르도), 페네르바체(터키) 소속으로 유럽생활을 시작한 ‘수비의 핵’ 김민재(25)다.

최종예선 일정상 늦게 합류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질 준비시간은 사실상 하루

뿐이다. 통상 경기 전날 훈련은 세트피스 등 부분전술을 점검하고 컨디션을 확인하는 정도로 가볍게 진행된다. 팀 조직력이란 측면에선 다소 아쉬운 상황이 분명하다.

상대국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한국을 2006독일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네덜란드)을 선임한 이라크는 9일부터 20여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르베야와 터키에서 손발을 맞췄고, 레바논도 열흘 가량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벤투 감독과 태극전사들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강인이 30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발렌시아(스페인)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전했다. 그는 유스팀 시절부터 10년 동안 몸담은 발렌시아와 계약을 해지했다.

사진출처 | 이강인 인스타그램

이강인 “꿈의 문을 열어준 발렌시아, 굿바이”

스페인 2부 마요르카와 4년계약
SNS에 ‘10년 동지’ 애뜻함 남겨
‘유망주→스타’ 발돋움 위한 선택

이강인(20)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발렌시아(스페인)와 작별을 고했다. ‘특급 유망주’를 넘어 ‘대형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강인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10년 만에 발렌시아를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발렌시아는 꿈의 문을 열어주고 지지해준 팀이다.

이 구단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팬들께 존중의 의미를 담아 작별을 고한다”고 전했다.

TV 예능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하며 축구신동으로 주목 받았던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했다. 16세였던 2017년 12월 발렌시아 메스타야(2군)로 월반해 스페인 3부리그에 출전하며 프로에 데뷔했다. 2018년 여름에는 정식 프로 계약을 맺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에도 출전했다. 2019년 참가한 국제 축구연맹(I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선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선

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해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이강인은 2019~2020시즌부터 주전 도약을 기대했지만, 당시 팀을 이끌던 마르셀리노 토랄 감독의 수비적 전술과 맞지 않았다. 알베르트 셀라데스, 하비 그라시아 등 후임 감독들에게도 중용 받지 못했고, 올 시즌 부임한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의 구상에선 완전히 제외됐다. 4시즌 동안 모든 공식 대회를 통틀어 62경기 출전에 그쳤다. 탁월한 기술과 센스가 강점이지만, 공수 균형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의 눈에 이강인의

느린 발은 치명적 약점이었다.

유망주 수준을 넘어 진정한 스타로 거듭나기 위해 발렌시아와 작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강인은 현재 20세로 아직 앞날이 창창하지만, 국가대표를 넘어 세계적 선수로 성장하려면 꾸준한 실전경험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출전시간을 보장받길 원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강인은 “이제 큰 희망을 품고 ‘아문트(AMUNT·발렌시아 응원 구호)’를 외치며 내 앞에 있을 미래에 맞서겠다”는 말로 각오를 다진했다.

이강인의 차기 행선지는 스페인 2부의 마요르카다. 스페인 매체 카데나 세르에 따르면, 그는 발렌시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마요르카와 4년 계약에 합의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